

2026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채용박람회

기간 | 2026. 8. 13(목) ~ 11. 30(월)

장소 | **(PC접속)** 사람인 내 신용보증기금 채용관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koditjob2026
(모바일접속) QR 인증 또는 사람인 모바일 홈페이지
[m.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koditjob2026](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koditjob2026)
 ※모바일과 PC 접속 주소가 상이합니다.

대상 | 신용보증기금 이용 기업 중 해당기간 동안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

KODIT 신용보증기금 x saramin



QR코드로 만나는 경영자 아카데미



ESG 경영 업데이트
지금 바로 확인

01 이달의 이슈

- 2026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채용박람회

02 비즈니스 가이드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 실시

03 이달의 신보

- 신용보증기금, 2,690억 원 규모 유동화수익증권 첫 직접 발행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04 이달의 신보

-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한화그룹과 '방산·조선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5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우수사례

- 마케팅분야

06 신용보증기금 칼럼

- CEO Report - 인사노무 칼럼

참가신청

PC기준



- 1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koditjob2026)
- 2 팝업(참여신청 하러가기) 선택
- 3 신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4 기업 확인 후 확정 메일 안내
- 5 채용 공고 등록

모바일기준



- 1 홈페이지 접속
(QR, <https://m.saramin.co.kr/jobs/theme/koditjob2026>)
- 2 참여신청 탭에서 '신청하기' 선택
- 3 신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4 기업 확인 후 확정 메일 안내
- 5 채용 공고 등록

참여혜택

참가비 전액 무료	사람인 채용공고 온라인 채용박람회 동시 노출	사람인 PC 및 모바일 메인페이지 채용박람회 배너홍보
인재풀 100건 무료 제공	FIT 인적성 검사 10건 무료 제공	참여기업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2026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채용박람회 운영사무국(사람인)

☎ 02-6377-2219 | ✉ ps@saramin.co.kr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 해외진출 컨설팅 실시

행사개요

- 주요내용 :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중 수출희망기업 또는 수출기업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자문분야 : 해외마케팅(해외시장 진출전략, 바이어상담 등), 무역지원제도 안내, 무역실무(무역서식 작성, 검수 등), 그 외 무역 애로 상담 및 해결
- 진행방법 : 신청기업과 조율하여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 등 자유롭게 결정 가능
- 비 용 : 한국무역협회에서 전액 부담(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무료)
- 지원현황 : '21년 첫 실시 이후 847개사 지원

신청대상

- 대상기업 : 신보 이용기업 중 한국무역협회 유료회원이 아닌 기업*
(신보를 통해 한국무역협회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제외)
- * 한국무역협회 유료회원 : <http://membership.kita.net> 상담서비스 별도 이용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6. 8. 28.(금)
- 상세방법 : ① 작성양식(참가신청서 + 기업/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총 8장 작성
② 총 8장을 파일 1개로 스캔 [파일명: 신청기업명/ 예시: (주)신보] →
③ 이메일(consultop@kodit.or.kr) 전송
[메일 제목: 해외진출컨설팅_기업명 / 예시: 해외진출컨설팅_(주)신보]



신용보증기금, 2,690억 원 규모 유동화수의 증권 첫 직접 발행

- 특수채 분류로 기존 SPC 방식 대비 금융비용 평균 111bp 절감
- 하반기 두 차례 추가 발행 추진, 고금리·고환율 속 기업 자금조달 숨통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지난달 30일 2,690억 원 규모의 유동화수익증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된 이후 자기 신탁 방식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한 첫 사례이자 신보 최초의 직접 증권 발행이다.

신보는 지난해 7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유동화 증권 직접 발행 시스템 구축에 전념해 왔다. TF는 지난 1년 동안 발행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전산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협의 및 규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특수목적

법인(SPC) 방식으로 외부 기관이 수행하던 기초자산 인수, 자금관리, 업무수탁 등의 핵심 기능을 신보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특히 이번 유동화수익증권은 특수채증권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SPC 방식보다 조달 금리가 대폭 낮아졌다. 발행금리 및 각종 수수료 인하에 따라 신보는 편입기업에게 3년간 평균 111bp 수준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 냈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신보는 수요예측에 앞서 약 3주간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모집금액 2,600억원을 상회하는 투자수요를 확보했다.

첫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보는 올해 하반기에도 두 차례 추가 발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환율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신보가 증권 발행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많은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직접 발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 중소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성과 인정받아 지원우수단체 부문 단독 수상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지난 7일 개최된 '2026년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소기업 유공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물론, 위기기업의 재도약과 실패기업의 재도전을 아우르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원우수단체 부문에서 단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매출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빌드업 프로그램' ▲복합 위기로 경영 상태

가 취약해진 기업의 부실 예방을 지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사업 실패 기업의 재기를 뒷받침하는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우 신보 이사는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약·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한화그룹과 '방산·조선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비수도권 방산·조선 협력기업의 생산성 및 산업안전
역량 강화 위한 시설투자 우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엔진과 함께 '방산·조선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화그룹 협력사에 시설투자를 지원해 생산성과 산업안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신보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추천 협력사에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미래전략산업특별자금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자동화 설비 구축 등 시설투자 수요가 있는 비수도권 소재 방산·조선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의 상생협력으로 기존 운영자금 중심의 금융지원을 대규모 시설투자자금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산업안전 설비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승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금융이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고위험 시설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나아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대한민국이 방산·조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금융·비금융 맞춤형 프로그램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대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중진공의 금융·비금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스

케일업 지원 ▲국내·외 금융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준 이사장은 “양 기관의 역량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우수사례 - 마케팅 분야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이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기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저금리대출 위탁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거나(레벨업 컨설팅), 폐업(예정) 후 사업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제인지업 컨설팅)을 대상으로 하는 비금융 지원제도입니다.



기업 개요

*업종 : 교육 서비스업(일반 교과학원)

*애로사항 : 강사진 5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고정 인건비 부담과 수강료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마케팅 부족으로 신규 수강생 유입 및 학원 인지도 확대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이 높은 상황

*컨설팅 희망분야 : 마케팅

경영 역량 진단

컨설팅 전 경영진단 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5점 만점)	평균(5점 만점)
상품/서비스 관리 역량	5.0	4.4
고객응대 역량	5.0	
마케팅 역량	3.4(개선필요)	
구매 및 재고관리	5.0	
매장 관리 역량	3.8	

컨설팅 전

- 1 신규 수강생 유입 채널 부족: 학부모 대상 홍보가 입소문, 전단지 등 오프라인 채널에 집중되어 온라인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 기반이 미흡
- 2 온라인 마케팅 활용 미흡: SNS·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활용 경험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기획 및 채널별 운영전략이 부재
- 3 수익성 및 운영 효율 개선 필요: 강사진 유지에 따른 고정 인건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수강료 및 수업 구성의 수익성 개선 필요

개선과제 세부사항

- 1 학부모 타겟 맞춤형 블로그 콘텐츠 운영
 - 학원 특성과 주요 수강 대상을 고려한 핵심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고, 학부모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 주 2회 이상 블로그 포스팅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게시 후 네이버 검색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채널 관리방안 제시
 -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 수업 후기, 강사 피드백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구성
- 2 검색 노출을 높이기 위한 블로그 최적화
 -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해 HTML 태그 및 핵심 키워드 최적화 방법 안내
 - 블로그 이웃·공감 등 이용자 반응을 유도하고 RSS 등록 등을 통해 콘텐츠 노출 기반 강화
 -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학부모가 검색하는 주제와 표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상담 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전략 구체화
- 3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 병행 운영
 - 수업 현장 모습,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수료증·합격 축하 사진 등 학원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감성·시각 중심 콘텐츠 활용
 - 인스타그램 스토리·릴스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원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
 - 카카오톡 채널에는 수강 상담을 유도할 수 있는 자동응답 메시지를 설정하여 고객 문의 대응체계 마련

컨설팅 후

- 실행 가능한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블로그 주 2회 포스팅, 검색 키워드·HTML 태그 최적화, RSS 등록 등 실제 운영방법을 구체화 하여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 기반 확보
- 학원 특성을 살린 콘텐츠 확보: 수업 현장, 학생 학습 모습, 수료증 및 성적 향상 사례 등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인스타그램·블로그에 활용
- 온라인 상담·유입채널 다각화: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을 연계하고 자동응답 및 지역 타겟 홍보를 활용하여 신규 수강생 상담으로 이어지는 유입 구조 마련

종합 성과

-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 3종 신규 구축 및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 기반 마련
- 학부모·수강생 특성에 맞춘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신규 고객 10명 확보
-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개선을 통한 매출액 6.0% 증가



매출액 증가율
6.0% 증가



신규 고객개척수(명)
10명



지원사업연계건수(건)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또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위탁보증’ 이용 기업(관할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 플랫폼* 로그인 후 신청·접수 * 경영지원 플랫폼 주소 : www.kodit.co.kr/apps/index.do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기업성장총괄팀 ☎053-430-4512, 4514

[CEO Report - 인사노무 칼럼]

편리함의 함정,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노무법인 로울 대표 공인노무사 **황지호**

경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월 급여에 법정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6. 4. 9.)을 마련하여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경우 예기치 못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 회사의 포괄임금제, 과연 '유효'할까요?

대법원 판례(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등에 따르면,

- 1)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 약정을 맺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 2) 법정제수당과 해당 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급제'는 시정 대상입니다. 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급과 제수당을 아예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 위반으로 즉각적인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라 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 수에 따른 수당을 항목별로 명확히 산정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 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근로'는 무조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이 우선합니다. 즉,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보다 근로자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통해 받아야 할 법정제수당이 더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를 위한 노무관리 가이드(실전 대응 솔루션)

- 근로시간의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 연장/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서류 증빙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합법적인 근로시간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요건을 재점검하여 실 근로형태에 맞게 법정제수당과 해당 근로시간수 등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정확히 명시 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